

첨부 - 동향

[한국블록체인협회 - 2021년 2월]

# 「디지털자산」 동향 보고서

2021. 3. 2

## 목 차

1. 국내 · 외 규모 .....	1
2.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	2
3.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	10
4. 국내 · 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동향 .....	17

본 보고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時事報道)를 기초'로 하여  
정리한 '참고용' 자료임을 밝힙니다.

## 1 국내 · 외 규모

### □ 비트코인 규모 2021년 거래규모(약 3828조 거래)(2021. 2. 21)

-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액은 3조4608억8300만달러(약 3828조4000억원)를 기록, 2020년 같은 기간 비트코인 거래액 1조5424억9400만달러(약 1706조300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

\* 출처 : 비트코인 올해만 3828조 거래... 투자자 보호 목소리 커진다(파이낸셜뉴스 이설영 2/21),  
<https://www.fnnews.com/news/202102211638256491>

- ▶ (비트코인 거래액 증가) 2020년 1월 7000달러(약 770만원)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은 현재 5만6000달러(약 6196만원)를 넘어섬
- ▶ (비트코인 시가총액 증가) 2020년 1월 초 약 2000억달러(약 221조2000억원)에서 1조5800억달러(약 1748조4000억원)로 크게 증가
- ▶ (비트코인 투자자 증가)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전세계에서 새로 생성된 비트코인 주소의 수는 27만712개였으나 2021년 1월 17일에는 51만5789개를 기록
- ▶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 가상자산 공시 전문 서비스 쟁글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국내 온체인 거래 수신량은 2200억달러(약 243조3000억원)로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

## 2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 □ 국 외

#### ○ 국제결제은행(BIS)

- 국제결제은행(BIS)은 65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3차 CBDC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BIS는 2019년 1월부터 매년 CBDC 설문조사를 진행 (2021. 1. 27)

\* 출처 : BIS "개발도상국, 선진국보다 CBDC 속도 빨라"(코인데스크코리아 함지현 2/3)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2683>

- ▶ 보고서는 CBDC 프로젝트 진행 수준을 조사·연구, 개념증명(PoC), 파일럿 테스트 총 3단계로 구분, 2020년 2단계 이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전체의 74%(48곳)를 차지, 구체적으로 2단계 국가 비중은 60%(39곳)로, 2019년 42%에서 18%포인트(P) 상승, 3단계까지 진척된 국가 비중은 14%(9곳)로, 전년(약 9%)보다 증가
- ▶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추진 속도가 더 빨랐으며, BIS는 보고서를 통해 높은 단계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중앙은행 8곳(샌드달러를 이미 발행한 바하마 중앙은행 제외) 중 7곳이 개발도상국이라고 설명, BIS는 개발도상국이 적극적인 이유를 지정학적 상황과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 전략에서 찾음(상대적으로 부족한 금융 인프라에서 금융소의 계층을 끌어안기 위한 목적)
- ▶ 반면 선진국은 결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CBDC를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 OECD

- OECD가 2월 발간한 보고서 'CBDC와 결제수단: 국내 및 국제적 영향'에 따르면, 2006~2016년 현금 거래액은 미국, 영국 등 11개국에서 매년 1.3~2.2%씩 감소하고 있고 2026년까지 연간 평균 감소율은 1.4%를 기록할 전망, 보고서는 범용화된 CBDC는 실물 현금 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은 해당 통화의 현금 인프라를 유지할 책임이 있고, 동시에 현금 수요가 줄어들 경우 중앙은행의 세뇨리지(seigniorage·화폐를 찍어냄으로써 비용을 빼고 얻는 차익)도 감소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CBDC를 발행할 기회가 된다고 설명(2021. 2. 16)

\* 출처 : OECD “현금수요 감소 대응… CBDC, 결제수단화 가능”(문화일보 송정은 2/1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1601072421337001>

- ▶ 보고서는 CBDC 설계 시나리오로 세 가지를 제시, 상업은행들이 소비자에게 CBDC와 관련한 분리된 계정을 제공하면서 현금 사용도 유지해 시스템 혼란을 줄이는 방식, 두 번째는 소비자가 직접 중앙은행 계좌를 보유하는 방안<운영 비용 및 제도 안정 리스크(위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현금도 보존>, 마지막은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CBDC로 대체되는 안(결제 시장의 모든 참가자가 CBDC 지갑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교환하는 시스템이라고 보고서는 설명>

## o G7

-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전 세계 주요 7개국 (G7)이 2021년 2월 12일, 온라인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2021. 2. 9)

\* 출처 : G7 재무장관 회의서 'CBDC' 논의 한다...12일 온라인 개최(토크포스트 하이레 2/9)  
<https://www.tokenpost.kr/article-53045>

## o IMF

- 국제통화기금(IMF)는 공식 블로그에서 디지털 시대에 공공화폐와 민간 화폐가 공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2021. 2. 18)

\* 출처 : IMF "CBDC와 민간 화폐 공존할 수 있다...안정성, 혁신성 두마리 토끼 잡아야"(토크 포스트 하이레 2/22), <https://www.tokenpost.kr/article-53927>

-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가 공존하며 상호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며 중앙은행들이 꼭 두가지 옵션 중 한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 IMF는 기존 통화 시스템이 공공 부문이 지원하는 안정성과 효율성에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혁신성과 다양성이 더해져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두 부문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o 미국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이 더 나은 규제 해답이 필요하다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 정책 담당 전문가를 고용하겠다고 밝힘(2021. 1. 30)

\* 출처 : 美 연준, CBDC 정책 담당 전문가 고용 나서(블록체인프레스 선소미 2/1),  
<https://blockinpress.com/archives/42498>

- ▶ 연준은 링크드인의 채용공고를 통해 디지털 혁신 정책 프로그램의 관리자를 채용한다고 공개, 이 프로그램은 스테이블 코인과 CBDC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용될 관리자는 디지털 화폐의 장단점을 평가하게 될 전망
- ▶ 연준은 정책 담당자는 연준의 운영과 금융 서비스 규제, 신흥 결제 플랫폼과 활동, 기관 규제감독 프레임 등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

## - 미국 CBDC 연구 본격화 전망(2021. 2. 22, 2. 23)

\* 출처 : 미국도 중국처럼 디지털 화폐 속도내나(중앙일보 이승호 2/25)

<https://news.ajns.com/article/23999555>

- ▶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 파월 의장은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는 (정책) 우선순위가 높으며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매우 폭넓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디지털 화폐를 제대로 발행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첫 번째 디지털 화폐 발행국이 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2021. 2. 23)
-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함, 많은 미국인이 간편결제 시스템과 은행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 달러가 (기존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지불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어 주로 현금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달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2021. 2. 22)

## -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출시하기 전 명확한 정책 목표, 포괄적인 이해관계자 지원,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 수준 높은 기술, 시장준비도 필요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보고서(제스칭, 안젠라 로슨, 폴 왕 집필) 발표(2021. 2. 24)

\* 출처 : 미 연준 보고서 “CBDC, 명확한 정책 목표·이해관계자 지원 등 갖춘 뒤 발행해야” (블록미디어 강주현 2/25),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0653>

## ○ 중국

## - 중국 인민은행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합작법인을 설립, 더블록은 중국 인민은행과 스위프트가 1200만 달러를 투자해 '파이낸스 게이트웨이 정보 서비스 유한회사(Finance Gateway Information Service Limited)'를 설립했다고 보도(2021. 2. 3)

\* 출처 : 중국 인민은행-스위프트, 합작법인 설립(코인데스크코리아 함지현 2/4),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2689>

- ▶ 스위프트가 홍콩 자회사를 통해 지분의 55%(662만 달러), 중국 인민은행의 100% 자회사인 '중국 국영 어음교환 센터(CNCC)'가 지분의 34%(410만 달러)를 취득, CNCC의 국경 간 지급결제 청산 법인인 '크로스보더 인터뱅크 지급결제 유한회사(CPIS)'가 5%,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 연구소가 3%, 중국 결제 청산협회(PCAC)가 나머지 3% 확보

- ▶ 스위프트와 중국 인민은행은 합작법인 설립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합작법인은 스위프트가 중국 위안화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법인을 설립한 지 1년 만에 출범
- ▶ 더블록이 법인 등기본을 확인한 결과, 새로운 조인트 벤처는 황메이룬 (Huang Meilun) 스위프트 중국법인 최고경영자(CEO)를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며 이사회는 5명으로 구성, 청시강(Cheng Shigang) PCAC 부 사무총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음
-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춘제(설날) 전 추첨을 통해 5만 명에게 1인당 200위안씩 총 1000만 위안(약 17억 원)의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 줄 예정, 당첨된 사람은 전자지갑으로 디지털 홍바오(빨간 봉투)를 받게 되며, 디지털 위안화는 2월 10~17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정 상점에서 사용 가능(2021. 2. 7)
  - \* 출처 : 중국 베이징시, 17억 원 규모 디지털 화폐 시험 진행(이투데이 최혜림 2/7),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2820>
- ▶ 당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디지털 화폐 사용을 시범 도입할 계획, 이를 위해 올림픽을 1년 앞둔 시점에 대규모 디지털 화폐 도입 시험을 진행
- 중국이 베이징에 이어 두 번째 디지털 화폐 도입을 시험, CNBC방송에 따르면 청두시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CBDC) 거래를 시험하기 위해 시민 20만 명에게 약 4020만 위안(약 69억 원) 규모의 디지털 위안화를 배포할 것이라고 발표(앞서 5만 명에게 1000만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했던 베이징 시험보다 4배 크게 진행)(2021. 2. 23)
  - \* 출처 : 중국, 청두에서 69억 원 규모 디지털 화폐 시험(이투데이 고대영 2/24),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8226>

## ○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중국

-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자료에 따르면 홍콩 통화 당국과 태국은행,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통화연구소가 분산원장 기술(DLT)을 바탕으로 한 중앙은행 발행 공통 디지털화폐(m-CBDC)\*\* 개발 프로젝트에 상호 협력키로 함(2021. 2. 23)
  - \* 출처 : 아시아 공통 디지털화폐 나올까? 홍콩·태국·UAE·중국 손잡았다(디지털투데이 추현우 2/24),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587>
  - \*\* m-CBDC 브리지 프로젝트(Bridge Project)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국경 간 결제와 송금을 위한 도매 CBDC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 ▶ 홍콩·태국·UAE·중국 중앙은행은 2019년부터 다국적 외환 결제 및 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 m-CBDC 브리지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공통 디지털화폐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
- ▶ 나라별로 DLT 기반의 상호호환성을 지닌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경 간 자금 이체, 국제 무역 결제 및 자본 시장 거래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

## ○ 인도

- 인도 최대 국영은행인 SBI(State Bank of India)는 JP모건 은행과 국경간 결제 네트워크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가 전함, 인도 SBI는 JP모건\*\*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인 링크(Liink) 회원사로 등록됐다.(2021. 2. 23)

\* 출처 : 아시아 공통 디지털화폐 나올까? 홍콩·태국·UAE·중국 손잡았다(디지털투데이 추천우 2/24),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587>

\*\* 2017년 JP모건이 개발한 링크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로 전 세계 78개국, 400여개 금융기관과 기업이 회원사로 포함(전 세계 상위 50개 은행 중 27개 은행이 링크에 가입). SBI는 인도 최초의 링크 회원사로 이름을 올릴 예정

## ○ 일본

-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NHK 인터뷰를 통해 2021년 봄 '디지털 엔화' 시범 사업 추진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힘(2021. 2. 20)

\* 출처 : 일본은행, 올 상반기 '디지털 엔화' 시범사업 벌인다(디지털투데이 추천우 2/22),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398>

- ▶(추진 목표) 현금과 동일한 기능 확보(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불 수단을 만든다는 것이 목표),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용 단말기 제공도 검토
- ▶(추진 계획) 일본은행은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디지털 엔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 첫 단계는 디지털 엔화 발행 및 배포 기록을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적인 운용 실증 시행, 1년간 실증 시험을 거친 뒤 그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민간 활용 등 후속 단계를 추진

## ○ 유럽

-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유럽 경제학자 피터 보핑거와 토마스 하스는 최근 발표한 논문을 통해 CBDC가 디지털 현금의 대체용으로 필요 없다고 밝힘(2021. 2. 1)

\* 출처 : “중앙은행, CBDC 필요 없다”...유럽 경제학자 발간한 보고서 보니(블록체인프레스 선소미 2/2),  
<https://blockinpress.com/archives/42530>

- ▶ 보고서는 많은 국가들이 CBDC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CBDC는 ‘명백한 정당성’이 결여돼 실패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강조, 중앙은행들이 교환 매체로서의 CBDC에 지나치게 치중해왔다면 CBDC는 민간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들다고 덧붙임
- ▶ 중앙은행이 시장에 간섭하지 않고서는 CBDC 출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시민들은 이미 개별 민간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가 시스템이 제공하는 화폐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기 쉽지 않다는 설명, CBDC가 기업과 대규모 투자자를 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활용 가치가 있다고 밝힘

## □ 국 내

- 한국은행이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보고서 공개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상 일반적인 가상자산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정순섭 서울대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참여)(2021. 2. 8)

\* 출처 :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는 가상자산 아니다”(지디넷코리아 임유경 2/8),  
<https://zdnet.co.kr/view/?no=20210208140140>

\*\* 특금법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해 발행주체 유무와 관계없이 폭넓게 정의

- ▶ 이 보고서는 CBDC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담음
- ▶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할 때 검토해야 할 첫 번째 원칙으로 법화로서 발권력 및 강제통용력에 있어 현재 통용되는 한국은행권 및 주화와 같은 지위 확립을 제시(한국은행법에 CBDC 발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한국은행권 및 주화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할 필요)

- ▶ 이러한 점에서 현행법상 한국은행이 아닌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가상 자산은 명칭과 관계없이 CBDC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CBDC는 가상자산이 아니며 한국은행이라는 명확한 발행 주체가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독점적인 발권력에 근거한 것이므로 발행주체가 없거나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발권력에 근거하지 않은 통상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
  - ▶ 보고서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제외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 제2조 제2호 단서 각목의 어느 하나로 CBDC를 추가하거나 제2조 제3호 단서 사목에 따라 대통령령에 CBDC를 추가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
  - ▶ 이외에도 CBDC를 발행할 때 검토해야 할 원칙으로 민사집행 및 형사집행 시스템이 CBDC에도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CBDC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CBDC가 시장에서 법화로서 성공적으로 유통이 되고 불법적인 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CBDC의 이전에 관해 법률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압류, 강제집행, 몰수이 가능해야 한다는 설명
  - ▶ 또한 CBDC 발행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
  - ▶ 한국은행은 현재 CBDC 구축에 필요한 업무프로세스와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는 '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을 수행중이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에 '클라우드 가상환경'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실제 구현해 테스트할 방침
-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이치닥테크놀로지(Hdac)\*\*가 한국은행과 CBDC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 '수탁 시스템' 구축을 논의 중,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에이치닥과 스테이블코인 수탁 시스템 개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에이치닥은 이르면 2월부터 수탁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2021. 2. 8)

\* 출처 : 범 현대家庭대선, 한은 CBDC 수탁 노린다(팍스넷뉴스 원재연 2/10), <https://paxnetnews.com/articles/70771>

\*\* 에이치닥은 HN(옛 현대 BS&C)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 국내 대기업 계열사 중에는 유일하게 ICO(가상자산공개)를 진행, 현대 BS&C는 IT 서비스와 건설 사업을 주로 추진 해왔으며 해당 업력을 바탕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한 것이 에이치닥, 2018년 에이치닥의 ICO를 진행해 모은 투자 금액은 약 3000억원으로 역대 ICO 투자금 세계 5위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21년 안에 예정대로 가상환경에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암호자산은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함(2021. 2. 23)

\* 출처 : 한은 총재 “가상자산 내재가치 없다…올해 예정대로 CBDC 테스트한다”(블록미디어 강주현 2/23),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0482>

- ▶ 한국은행은 2020년 3월부터 CBDC 관련 사업을 3단계에 걸쳐 진행, 현재는 3단계인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작업을 진행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디지털화폐(CBDC)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정부가 손놓고 있지는 않다고 밝힘(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2021. 2. 24)

\* 출처 : 김상조 靑 정책실장 “디지털화폐(CBDC), 정부 손놓고 있지 않아”(뉴스핌 이형석 2/24), <http://m.newspim.com/news/view/20210224001029>

- ▶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한은총재를 비롯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논의한 주제가 CBDC라며 대체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중이라고 설명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관련해 ‘빨리 하는 것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CBDC와 관련해 앞서나가고 있지만 정작 도입까지는 신중할 것이라고 본다면 가장 먼저 한다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말함(2021. 2. 25)

\* 출처 : 한은 총재 “CBDC, 속도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IT조선 김연지 2/25),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02007.html](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02007.html)

- ▶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국제화’ 측면에서 실험될 가능성에는 CBDC를 발행하더라도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면 우리나라는 원화 기반의 지급결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함

### 3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 □ 국 외

##### ○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 FATF는 회원국 전체 화상회의 직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트래블 룰 개정이 열려있다고 3월 중에 개정 내용을 담은 공개 협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힘(2021. 2. 26)

\* 출처 : 특금법 시행 한 달 전... '트래블 룰' 개정된다(디센터 김정우 2/26),  
<https://decenter.kr/NewsView/221OKX330R>

- ▶ 전체회의 종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커스 플라이어(Marcus Pleyer) FATF 회장은 트래블 룰 적용이 늦어지는 국가에 관용을 베풀 계획은 없다는 질문에 지금 트래블 룰을 포함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다며 6월 중에 확정될 것 같다고 말함
- ▶ 홈페이지 발표에 따르면 개정 내용에는 스테이블코인에 FATF 표준을 적용하는 방법, 공공 및 민간 부문이 트래블 룰을 이행하는 방법, P2P 거래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 미국

- 비트코인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 현실 재화 거래에 비트코인을 쓰는 문제를 푸는 실험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포브스가 전함(2021. 2. 1)

\* 출처 :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美 마이애미, 암호화폐 친화 도시 모색(서울신문 홍희경 2/3)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02500045>

- ▶ 프란시스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은 포브스 인터뷰에서 뉴욕의 금융과 실리콘밸리의 기술이 합쳐진 결과물이 비트코인이라며 마이애미가 비트코인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술 인력을 유치하고, 비트코인 결제를 활용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 더불어 시 공무원 봉급 지급, 공과금과 세금 지불에 비트코인을 쓰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시 재무부의 투자 자금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힘

- ▶ 2020년 10월 암호화폐 매체인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도시는 로스앤젤레스로 이 도시의 기업 중 17곳에서 비트코인 결제 가능, 이어 뉴욕(13곳), 산호세(6곳)가 비트코인 친화도시
- 프랜시스 수아즈 미국 마이애미 시장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월 11일 (목)(현지시간) 있을 회의에서 비트코인을 마이애미 시정부 대차대조표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2021. 2. 9)
  - \* 출처 : 美 마이애미 시장 "대차대조표에 BTC 추가 방안 검토 중"(뉴스핌 코인뉴스 2/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209000382>
- 프란시스 수아레즈 시장이 비트코인으로도 세금을 받겠다고 선언 (2021. 2. 11)
  - \* 출처 : 암호화폐로 세금 낸다...비트코인 격 올린 '마이애미 실험'(중앙일보 강남규 2/15), <https://news.joins.com/article/23991730>
- 미국 마이애미 프란시스 수아레즈 시장이 공무원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또한 급여 지급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일에 대해서도 고려 중
  - \* 출처 : 美마이애미, 공무원 급여 '비트코인'으로 지급한다(블록체인투데이 박요한 2/15),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4>
- ▶ 시의회에서 수아레즈 시장의 건의는 4:1로 통과, 하지만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은 수아레즈 시장의 기존 요청과 조금 차이 有, 시의회가 비트코인 급여 지급에 대한 현실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수아레즈 시장의 건의가 실제로 적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
-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ME)\*\*는 미국 동부시간 2021년 2월 8일 오후 6시 (한국시간 9일 오전 6시) 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출시(2021. 2. 8)
  - \* 출처 : 테슬라가 비트코인 15억달러치 샀다...비트코인 급등 '사상 최고가'(머니투데이 김평화 2/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908014766384>
  - \*\* CME는 세계 최대 규모 파생상품 거래소, 파생상품은 투자자가 자산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고 자산의 미래 가격에 투자하는 상품을 말함
-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프로테코(Protego) 신탁은행이 미국 통화 감독청(OCC)으로부터 신탁 현장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 앵커리지(Anchorage)에 이어 두번째(2021. 2. 6)
  - \* 출처 : 미 신탁은행 '프로테고',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조건부 가상자산 신탁 라이선스 취득 (비트와이드 김수정 2/9), [https://www.bitwide.co.kr/news/news\\_view.php?uData=ZXhITW9kZSUzRHZpZXclMjZpZHZlM0QzOTU0](https://www.bitwide.co.kr/news/news_view.php?uData=ZXhITW9kZSUzRHZpZXclMjZpZHZlM0QzOTU0)

- ▶ 이번 승인으로 프로테고는 워싱턴 주 공인 신탁은행에서 전국 신탁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으며, 전국 프로테고 고객들은 디지털 자산을 보유·거래·대여·발행할 수 있게 됨
- ▶ OCC는 프로테고가 운영 시작을 위해 일련의 조건을 충족하는데 있어 최종 전환까지 최대 18개월이 걸릴것으로 예측

## o ECB(유럽중앙은행)

- 유럽중앙은행(ECB)은 페이스북의 디엠(Diem) 등 거대 IT 기업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개인정보 침해, 경쟁제한 및 화폐주권 위협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2021. 2. 10)
  - \* 출처 : 유럽중앙은행, 거대 IT 기업 암호화폐의 화폐주권 위협 우려(더뉴스코리아 김두용 2/15), <http://www.newskorea21.com/543345>
- ▶ ECB 암호화폐 담당 파비오 파네타 이사는 거대 IT 기업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새로운 방식의 결제수단을 통해 전통적 유통망을 회피하려 한다고 진단
- ▶ ECB는 디엠의 독주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유로화 암호화폐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빠르면 2021년 4월경 유로화 암호화폐 발행을 공식 제안할 전망

## o 스위스

- 스위스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법안 두 가지 중 1단계가 시작(2021. 2. 1)
  - \* 출처 : 스위스, 블록체인·암호화폐 1단계 법안 시행(블록체인투데이 박요한 2/2), <http://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59>
- ▶ 기업 개혁을 포함한 스위스 블랙체인 1단계 법안이 시행되었으며 2020년 9월, 스위스 의회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확대를 통과시켰고 법안은 총 2단계, 2단계 법안\*은 2021년 여름에 시행 전망
  - \* 2단계 법안은 스위스 금융시장 인프라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을 목적
- ▶ 크립토 브로커(Crypto Broker)\* AG는 '스위스 금융감독 위원회(FINMA)가 면허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 2020년 거래규모가 10억 달러를 초과한 중개기업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토큰화 증권을 발행 가능
  - \* 크립토 브로커 AG는 SEBA, 시그넘 뱅크(Sygnum Bank)처럼 FINMA로부터 면허를 받았으며, 스위스에서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짐

- ▶ 전 세계적으로 스위스는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암호화폐와 관련된 완전한 법안을 마련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 그러나 스위스가 블록체인 시장에 맞도록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지만 리히텐슈타인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법적 구조를 마련하여 차이가 존재
- 스위스 주크(Zug) 주\*\*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용한 주민들과 기업들의 세금 납부가 마침내 시작됐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2021. 2. 18)
  - \* 출처 : 스위스 크립토밸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용한 세금 수납 시작(블록미디어 장도선 2/19)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0150>
  - \*\*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친화적인 정책 때문에 ‘크립토밸리’라고 불리는 주크 주는 2021년 2월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최고 10만 스위스프랑(미화 약 11만13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음
- ▶ 암호화폐로 납부한 세금은 주크 주정부와 제휴한 암호화폐 브로거 및 수탁 기관인 ‘비트코인 스위스’가 스위스 프랑으로 교환해 당국에 전달

## ○ 홍콩

- 홍콩 암호화폐 업계가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의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2021. 2. 15)
  - \* 출처 : 홍콩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도입, 역효과 우려(블록미디어 강주현 2/15),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69819>
  - \*\* 홍콩 금융감독청과 재무부는 자금세탁방지강화와 테러방지자금조달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11월 해당 법안을 입법 예고, 2021년 1월 홍콩 행정부는 법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2021년 말 홍콩입법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
- ▶ 이 제도는 전문투자자 범위 안에서 선정된 암호화폐 거래 참여자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 업계에서는 이 법이 홍콩 내 암호화폐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며 현지 암호화폐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의 93%를 제외할 것으로 우려
- ▶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법안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의 요구 사항을 초과하며 중국 본토에서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

## ○ 태국

-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월 방청회를 열고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 시장 진입 요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
  - \* 출처 : [코인계 글로벌 동향] 러시아·홍콩·태국 등 가상자산 입법안 마련 나서(코인리더스 박소현 2/16), <https://www.coinreaders.com/10080>

-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태국 SEC는 신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충분한 교육 및 경험을 갖췄는지,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흡수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

## o 인도

- 인도 정부 각료가 암호화폐 전면 금지 보다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이 정리될 수 있음을 시사(2021. 2. 2)

\* 출처 : 인도 정부 각료, 암호화폐 전면 금지 대신 규제 가능성 시사(블록미디어 장도선 2/3),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68950>

- ▶ 아누라그 싱 타쿠르 인도 재무장관은 상원에서 불법적인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억제하고 결제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암호화폐 관련 입법의 목적이 될 것이라고 밝힘

- ▶ 타쿠르 장관은 상원에서의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는 암호화폐를 법정 지폐나 동전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암호화폐 자산이 불법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이나 결제시스템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함

- ▶ 인도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1월 29일, 정부가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시키는 법안의 고려를 시작할 것이라는 하원 회보 내용이 공개되며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하원 회보에서는 사용된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 해석 상의 여지를 남김, 타쿠르 장관의 발언은 정부 계획에 일부 명확성을 제시했지만 법안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코인데스크는 지적

- 인도 공무원(재무부 소속) 중 한 명이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의명을 전제로 인도의회가 암호자산을 금지할 것이고 현재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3-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외국 교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또한 금지될 것으로 알려짐(2021. 2. 15)

\* 출처 : 인도 '암호화폐 금지' 곧 실현... "3~6개월 유예기간 후 완전 금지"(블록체인투데이 김소연 2/15), <http://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0>

- ▶ 2021년 1월 인도 의회는 국가예산에 관한 논의 중 '2021년 공식 디지털 통화 관련 법안'에 대해 언급, 언급된 법안에서는 인도중앙은행 RBI\*\*가 발행할 디지털화폐인 디지털 루피의 사용을 촉진할 구조가 필요한 한편, 다른 모든 암호화폐의 사용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

\*\* 2018년 4월 인도중앙은행 RBI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으며, 2020년 3월 인도 최고법원은 인도에서 암호화폐 기업의 활동을 인정, 하지만 2020년 6월 인도 재무부는 다시 한 번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한 입법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 사용이 다시 제한

## ○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정부는 리브네 지역의 국영 원자력 발전소 '에네르아툼'의 암호화폐 채굴 관련 데이터 작업을 처리할 현지 업체를 모집 중이라고 발표(2021. 1. 30)

\* 출처 :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채굴 데이터 센터 설립 나서... '원자력 발전소 활용'(블록체인프레스 선소미 2/1), <https://blockinpress.com/archives/42515>

- ▶ 2020년 5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남은 전력들을 암호화폐 채굴에 이용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자국 원전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타당성 평가 연구를 의뢰
- ▶ 현지 에너지 기업인 '키예프 에너지 건설'이 입찰됐으며, 이 기업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계획, 초기 채굴 용량은 250메가와트(MW)이고, 향후 500MW까지 늘려갈 방침

## ○ 나이지리아

- 세계에서 암호화폐 이용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현재 모든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에 관련된 계좌를 즉시 폐쇄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짐(2021. 2. 5)

\* 출처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블록미디어 박재형 2/6),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69227>

- ▶ 2017년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규제 받지 않는 암호화폐의 이용을 경고하면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있어 암호화폐의 이용 가능성을 지적

## ○ 러시아

-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뉴스는 러시아 현지 매체 리아노보스티를 인용해 러시아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최근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강력한 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

\* 출처 : 러시아 정부, 암호화폐 거래 모니터링 강화 규제 추진 중...어떻게?(블록체인프레스 선소미 2/9), <https://blockinpress.com/archives/42655>

- ▶ 리아노보스티는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법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8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세부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함
- ▶ 이 매체가 인용한 업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현재 모든 암호화폐 거래들의 연간 세금 신고서를 제출토록 강요하고 있고, 러시아 의회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들은 개인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토록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
-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 두마 (State Duma)는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두마 국가건설 및 입법 위원회가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힘(2021. 2. 15)
  - \* 출처 : [코인게 글로벌 동향] 러시아·홍콩·태국 등 가상자산 입법안 마련 나서(코인리더스 박소현 2/16), <https://www.coinreaders.com/10080>
- ▶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러시아 거주민 대상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 현지인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글로벌 기관 등도 납세 의무 有
- ▶ 연간 암호화폐 거래액 60만루블(8100달러) 이상일 경우 러시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납 시 미납세액의 40%가 벌금으로 부과, 러시아 두마는 2월 17일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을 심의할 예정

## □ 국 내

-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개정된 ‘특금 법령’ 이 2021년 3월 시행 예정, ‘2020년 세법 개정안’ 의 국회 본회의 통과(2020. 12. 2)로 2022년 1월 1일부터 세금 부과
-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1. 2. 9)
  - \* 출처 : 내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소득 과세...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뉴스1 2/9)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209/105352008/1>

- ▶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며,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함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업계에 따르면 빠르면 2월 17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 매뉴얼에는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과 절차 등이 담길 예정(2021. 2. 15)
- \* 출처 : 금융위, 이르면 17일 '가상자산 신고 매뉴얼' 배포(팍스넷뉴스 원재연 조아라 2/16), <https://paxnetnews.com/articles/70956>

## 4 국내·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동향

### □ 국외 기업 및 금융기관

#### ○ 테슬라

- 테슬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총 15억달러 규모 비트코인을 사들였으며, 테슬라 측은 현금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설명, 그러면서 추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도 언급(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가상자산 옹호론자)(2021. 2. 8)
- \* 출처 : 테슬라가 비트코인 15억달러치 샀다...비트코인 급등 '사상 최고치'(머니투데이 김평화 2/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908014766384>
- ▶ 외신에선 테슬라가 전기차 모델Y 등을 판매할 때 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받겠다는 계획도 전해졌으며,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2021년 2월 9일 오전 8시10분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코인마켓캡 비트코인 가격은 1개당 4만5300달러(한화 약 5100만원)를 기록(사상 최고치), 최근 24시간 기준 17.58% 오른 수치)

## ○ 비자(Visa)

- 알 켈리(Al Kelly) 비자 최고경영자(CEO)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비자는 암호화폐를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며(결제 시스템) 적용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비자의 지불결제 네트워크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밝힘, 암호화폐를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금'과 실물 화폐에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적합한 전략을 제시(2021. 1. 31)

\* 출처 : 비자 CEO "지불결제 네트워크에 암호화폐 추가"(코인데스크코리아 함지현 2/1),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2633>

- 비자(Visa)가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서비스('비자 크립토 APIs(Visa Crypto APIs) 시범 운영 중)를 준비 중, 시범 서비스의 첫 고객은 흑인 사회를 위한 인터넷 은행인 퍼스트 블러바드(First Boulevard)
  - ▶ 비자는 이번 서비스 출시 배경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금융 기관들에게 비자의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 자산 상품 취급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자했다고 설명, 비자 크립토 APIs는 2021년 말 출시 될 예정
  - ▶ 미국 통화감독청으로부터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은행' 자격을 취득한 앵커리지(Anchorage)가 이번 서비스의 파트너로 참여, 이에 '비자 크립토 APIs' 서비스 이용 은행들은 앵커리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있게 될 전망

## ○ 마스터카드

-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2021년 가상자산 지원 계획을 발표, 10억에 달하는 마스터카드 사용자가 일부 가맹점에서 가상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2021. 2. 11)

\* 출처 : 마스터카드, 2021년 가상자산 지원한다(비트와이드 김수정 2/16),  
[https://www.bitwide.co.kr/news/news\\_view.php?uData=ZXhITW9kZSUzRHZpZXclMjZpZGhlM0QzOTc2](https://www.bitwide.co.kr/news/news_view.php?uData=ZXhITW9kZSUzRHZpZXclMjZpZGhlM0QzOTc2)

- ▶ 마스터카드측은 신뢰성과 보안 문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지만 특정 가상자산을 밝히지는 않음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포함한 강력한 소비자 보호, 엄격한 KYC준수, 현지 법률 및 규정 준수, 지불 수단으로서의 안정성 등 4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

- 마스터카드가 바하마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연동된 선불카드 발급을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이 보도(2021. 2. 17)

\* 출처 : 마스터카드, 바하마 CBDC 연동 선불카드 발급 위한 파트너십 체결(블록미디어 강주현 2/18),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0075>

▶ 마스터카드는 바하마 CBDC ‘샌드달러’ 결제 시스템 내역을 공개, 모바일 결제 업체 아일랜드페이도 이 시스템에 합류 했으며 마스터 카드는 고객이 샌드달러 구매 시 현금으로 즉시 환전할 수 있는 선불 카드를 발급할 예정

## ○ 페이팔(PayPal)

- 세계적인 결제처리 대기업 페이팔(PayPal)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후 2020년 4분기 매출이 급증했다고 크립토포테이트가 보도 (2021. 2. 4)

\* 출처 : 페이팔 암호화폐 거래 도입 후 매출, 계정 수 급증(블록미디어 박재형 2/4),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69133>

▶ 페이팔은 2020년 4분기 투자자 대상 실적 보고서에서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4분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팔은 2020년 4분기에만 플랫폼 내 활성 계정 수가 1600만개 이상 급증하며 총 활성 계정 수가 3억 7700만개로 증가

▶ 페이팔의 계정 수 급증은 페이팔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직후 부터 본격화(2020년 10월 말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

- 페이팔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유통하겠다고 밝혔으며 영국에서도 결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2021. 2. 12)

\* 출처 : 페이팔CEO “페이팔 지갑, CBDC 유통수단 될것”...영국서도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지원(토큰포스트 선주은 2/15), <https://www.tokenpost.kr/article-53328>

▶ 댄 숄먼(Dan Schulman) 페이팔 최고경영자(CEO)는 페이팔의 디지털 지갑이 소비자들에게 CBDC를 배포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힘

## ○ JP모건

-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인 JP모건 대표가 JP모건도 언젠가는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가 보도(2021. 2. 15)

\* 출처 : JP모건 공동대표 "언젠가는 암호화폐시장 진출할 것"(뉴스1 박형기 2/15),  
<https://www.news1.kr/articles/?4211994>

- ▶ JP모건의 공동대표인 대니얼 핀토는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수요가 있다면 JP모건도 비트코인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함

## ○ 모건스탠리

-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자회사를 통해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2021. 2. 13)

\* 출처 : 모건스탠리, 테슬라에 이어 비트코인에 투자하나?(글로벌이코노믹 김수아 2/15),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2150311117295b8488d322b\\_1&ssk=pcmain\\_0\\_1&md=20210215044813\\_R](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2150311117295b8488d322b_1&ssk=pcmain_0_1&md=20210215044813_R)

- ▶ 모건스탠리 산하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내에서 카운터포인트 글로벌 팀이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 이 팀의 자산 운용 규모만 1500억 달러
- ▶ 모건스탠리는 공식 답변을 피하고 있지만, 해당 팀이 주로 성장주 투자에 나섬, 다만 실제 투자를 위해서는 규제당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해짐

## ○ 블랙록

- 릭 리더 블랙록 글로벌채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에 비트코인에 손을 담그기 시작했다고 말함, 리더 CIO는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에도 물가 상승과 빛이 늘어날 것이란 가정 속에 사람들이 값이 오를 '가치 저장수단'을 찾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2021. 2. 18)

\* 출처 : 블랙록은 손대고 JP모건은 스톱...美 금융3사가 본 비트코인(중앙일보 이승호 2/18),  
<https://news.joins.com/article/23995176>

## ○ 뉴욕 멜론 은행

- 2월 초 외부 파트너들과 함께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한 미국 뉴욕 멜론 은행(BNY Mellon)\*\*이 비트코인(BTC)과 기타 가상자산을 보유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파이어블록(Fireblock)\*\*\*과 협력한다고 밝힘(2021. 2. 23)

\* 출처 : 뉴욕 멜론 은행,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 추진한다(비트와이드 김수정 2/23),

[https://www.bitwide.co.kr/news/news\\_view.php?uData=ZXhITW9kZSUzRHZpZXclMjZpZGlmMQQ0MDEy](https://www.bitwide.co.kr/news/news_view.php?uData=ZXhITW9kZSUzRHZpZXclMjZpZGlmMQQ0MDEy)

\*\* 세계 증권거래소 그룹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ICE)가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백트(Bakk)와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

\*\*\* 페이스북의 디엠(Diem) 보안솔루션 제공 기업

## ○ 도이체뱅크(Deutsche Bank)

- 독일 종합금융회사 도이체뱅크(Deutsche Bank)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준비(2021. 2. 15)

\* 출처 : 도이체뱅크,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준비 중... "개념검증까지 마쳤다"(코인데스크코리아 Ian Allison 2/15),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2758>

▶ 2020년 12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간한 '암호화폐 사용 사례 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도이체뱅크의 디지털 자산 수탁업체는 완전히 통합된 보관 플랫폼으로 기관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광범위한 암호화폐 생태계에 연결하는 모델을 겨냥

▶ 도이체뱅크는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검증(PoC)을 이미 완료했으며 2021년 시범 이니셔티브를 위한 전세계 고객들의 관심을 모색하는 동시에 최소실행제품(MVP)을 선보일 예정

## ○ 보디어앤씨에

- 134년 전통의 스위스 은행 보디어앤씨에(Bordier & Cie)가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다고 외신들이 보도(2021. 2. 24)

\* 출처 : 스위스 은행 보디어앤씨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지원(블록미디어 박재형 2/25),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0638>

▶ 보도에 따르면, 이 은행은 시그넘(Sygnum)의 B2B 은행 플랫폼을 통합해 고객들의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할 예정(비트코인 외에도 시그넘의 암호화폐 서비스를 통해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테조스 등을 구매, 보유, 거래 가능)

- ▶ 이 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통합하기로 한 결정은 고객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알려짐, 은행 측은 디지털 통화가 가장 실적이 좋은 자산 등급이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됐다고 밝힘

## ○ SBI

- 일본 금융그룹 SBI홀딩스와 SMFG가 디지털 증권거래소를 열기 위해 협력, SBI와 SMFG는 2022년 봄 오사카 지역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증권거래소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2021. 1. 30)
  - \* 출처 : 日, 2022년 블록체인 기반 증권거래소 탄생 전망...“SBI홀딩스 • SMFG 손잡아“(블록체인프레스 선소미 2/1), <https://blockinpress.com/archives/42503>
- ▶ 설립될 기업 명칭은 오사카디지털거래소(ODX), 2021년 3월로 전망, 지분은 SBI가 60%, SMFG가 40%를 소유할 예정
- 일본 금융 대기업 SBI\*\* 홀딩스가 외국계 금융회사들과 암호화폐(가상화폐) 합작법인 설립을 협의 중이라고 기타오 요시타카 SBI그룹 회장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보도(2021. 2. 15)
  - \* 출처 : “日 SBI, 해외 기업들과 암호화폐 합작사 설립 협의중”(뉴스1 최종일 2/15), <https://www.news1.kr/articles/?4211765>
  - \*\* 일본 최대 온라인 증권사인 SBI는 2018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
- ▶ 기타오 회장은 암호화폐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2건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회사가 파트너가 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으며, 암호화폐 사업이 SBI의 수익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분명하다고 답하는 한편 대규모 인수합병(M&A)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함

## ○ 라세르&파피용

- BTC 와인\*\*이 비트코인 상승장에 힘입어 판매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밝힘, BTC 와인 관계자는 전통적인 와인 소비층보다 나이가 어린 고객이 많으며 실체가 있는 와인과 실체가 보이지 않는 비트코인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함, 프랑스에서는 BTC 와인의 사례를 본떠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는 와인업체가 더 생겨났다고 외신은 전함(2021. 2. 14)
  - \* 출처 : 암호화폐로 신흥부호 공략...佛서 잘나가는 ‘비트코인 와인’(한국경제 임현우 2/1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456301>

- \*\* 보르도에 있는 와인업체 라세르&파피용은 2017년 BTC 와인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 이곳은 우리 돈으로 2만원대 샴페인부터 900만원짜리 레드 와인까지 다양한 주류를 판매 중,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등의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제품 값은 유로와 비트코인 기준으로 함께 기입, 와인을 주문하면 고급스러운 원목 상자에 담아 해외로 배송

## ○ 패트릭 휴즈

- 야후파이낸스의 보도에 따르면 30년 동안 요식업에 종사해온 패트릭 휴즈는 바 두 곳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미국 달러 외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거래대금 지불이 가능하다는 조건 제시<호가는 25비트코인 또는 800이더리움, 최근 암호화폐 시세를 적용하면 약 150만달러(약 17억원)>, 이 매물은 2021년 1월 시장에 나왔지만 아직 거래는 성사되지 않음

\* 출처 : "뉴욕 맨해튼 술집, 25비트코인에 거래"...이색 매물 화제(한국경제 이고운 2/2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2212953i>

## □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

### ○ 싸이월드

- 싸이월드Z는 이르면 3월 중으로 싸이월드 서비스를 정상화하고 추억의 도토리 대신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짐(2021. 2. 2)

\* 출처 : 싸이월드, 추억의 도토리 대신 '암호화폐' 쓴다(동아일보 조혜선 2/3),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10203/105251068/2>

## □ 해외 투자자

### ○ 마크 큐반

- 미국의 유명 투자자 마크 큐반이 블록체인 기반 자산은 합법적인 가치저장 수단이라고 말함(미국 프로농구팀 댈러스 매브릭스의 공식블로그)(2021. 1. 31)

\* 출처 : 美 유명 투자자 마크 큐반 "블록체인 기반 자산, 합법적 가치저장수단"(블록체인프레스 선소미 2/1), <https://blockinpress.com/archives/42508>

- ▶ 디지털 가치 저장소는 암호화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디파이(DeFi, 탈중앙 금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큰들도 포함된다고 설명, 이어 이들 모두 시가총액 선두주자인 비트코인과 함께 오랜 역사를 지닌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덧붙임

- ▶ 블록체인 기술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한다며 디지털 상품들 중 유일하게 거래 기능을 갖췄다고 설명, 특히 대체불가능토큰(NFT)의 경우 공개된 분산원장의 투명성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
- ▶ 암호화폐 시장은 중앙 기관이 없고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들과 힘겨루기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많은 젊은 층들이 디지털 상품과 암호화폐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 이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